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2010년도 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행동지침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 만족한 아이처럼 (시편 131:1-3)

## Like a gratified child (Psalm 131:1-3)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하며, 어린 아이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두머리 자리를 위해 비열한 행동을 하는 대신 자신을 겸손한 자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We must become like a child in order to be saved from our sins and enter heaven. And to become like a child, we must be changed into a humble person.

### 1. 난해한 교훈을 가진 쉬운 시

시편 131편의 저자는 변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운 사람입니다. 본시는 3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로서 읽기는 쉽지만 그 안에 담긴 교훈을 배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스피전 목사님은 본시를 ‘짧은 사다리’라고 표현하며 그러나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간 자라고 말씀합니다.

### 1. An easy Psalm with a hard lesson

The psalmist who wrote this psalm learned the lesson of how to change himself. Although this psalm has only three verses and is a quick read, the lessons implied in them are difficult to learn. Pastor Charles Spurgeon described this psalm as a short ladder, but described the person who climbed it as one who had ascended to the highest place.

### 2. 자기만족을 하는 자신

시편 131편은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또는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놓으시기 전에 그의 성향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만 만족하는 법을 배운 개인 간증입니다.

다윗도 별 수 없는 아담의 후예였기 때문에 교만했고, 오만했으며 큰 야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교만을 절제하는 법과, 겸손해지는 법과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2. His own self-satisfaction

Psalm 131 is an individual confession of faith in which the writer learned what King David had done, how his character had been changed before God, and how God was satisfied with him. Since he was a descendent of Adam without any special key, King David was also proud and haughty, having great ambition. However, he learned how to be moderate and humble, doing whatever God wanted him to do.

### 3. 거듭난 자신

다윗은 1절에서의 교만하고 오만하고 야망에 넘쳤던 자기 삶을 부인하고 2절에 와서는 어머니를 의지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함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겸손과 신뢰의 덕성에 관한 것 뿐 아니라 교만과 야망의 반대 표현을 ‘젖 떤 아이’로 합니다. 다윗은 아이가 젖 떤 때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서서히 자기를 돌보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배웠습니다.

젖을 떼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만 구했습니다. 그러나 젖 떤 후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그가 기대하거나 원하는 법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숙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 3. The man who was born again

In verse 1, King David denied that he had any pride or haughtiness, or that he had ambition for his life, but in verse 2, he was completely dependent upon God as a child relies upon its mother. King David expressed his opposition to pride and ambition as well as the morality of being modest and trusting as ‘a weaned child.’ Just as a child went through the course of being weaned from its mother, he had gradually learned to rely upon the God who took care of him and supplied what he needed.

Before being weaned, the child would only ask what it could get from its mother. However, after being weaned, when the child hadn’t received what he was expecting or wanting, he learned the fact that God loved and took care of him. Therefore, David came to love God for God Himself. In other words, his relationship with God had matured.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시편 131편은 다윗이 자신에 관해 쓴 지극히 개인적인 시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과 이스라엘을 보고 그가 배운 것을 독자도 배우도록 도전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3절).

하나님만이 완전히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영적인 유아기에 있습니다.

젖을 떤 아이처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며 성숙한 신자로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Conclusion

Although Psalm 131 was written by David as more of a personal psalm, by the end of the psalm, he was speaking to Israel, challenging his readers to learn what he had learned. “O Israel, put your hope in the Lord now and forevermore” (v. 3). The Lord is our hope and He will not bring us to despair. The fact that we know this truth is spiritual, but regrettably there are many Christians who remain in a period of spiritual childhood. I sincerely pray that as mature Christians, you and I will put our hope in the Lord both now and forevermor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아이티 지진 난민』을 돕기 위한 구제헌금

##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교회는 2010년 1월 12일 21시 53분 천지를 뒤흔드는 지진으로 기아와 공포, 사망, 부상과 질병에 놓은 카리브 해의 작은 섬나라 아이티를 돕는 구제헌금을 오늘 주일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교회 계획표 상에는 선교헌금을 드리는 달이지만 천재지

변으로 인해 외부의 도움만을 절실히 기다리는 아이티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이번 달에 구제헌금을 드리기로 한 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쁜 마음으로 아이티를 돕기 위한 구제헌금에 동참하여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 제3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2010년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 일정 확정

제3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및 2010년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 일정이 확정되었다.

3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는 '다원사회 속에서 타종교와 이단, 사이버 종파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주제로 3월8일(월) 오후 2시에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리며 1교시는 허주 교수(아세아 연합신대)가 베드로 전, 후서 강해를 한다. 2교시는 주제에 따라 전문가로 이루어진 10명의 강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2010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도 3월8일(월)에 창세기 반(지도: 황광 목사)을 시작으로 각 프로그램 별 일정에 따라

일제히 개강한다. 열린프로그램은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과목 이상씩 수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에 든든한 기반을 둔 신앙을 확립하고, 말씀이 왕성하여, 내적으로 복음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외적으로는 복음 전파가 힘을 얻어, 서울교회 부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이웃 주민들도 쉽게 여가선용을 하고 깊이 있는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년 2차례 개강하고 있다.

특별히 이번 열린프로그램에는 성경통독반(지도 문정훈 목사)이 3주 과정으로 신설되어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수강료: 과목당 10,000 원)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창세기 반	월, 오전 10시	황광 목사	602호
갈라디아서 반	화, 오전 6시	서명철 목사	602호
고린도전서 반	목, 오후 7시30분	박종민 목사	602호
사사기 반	금, 오전 6시	유문건 목사	602호
성경통독반(30주)	목, 오전 10시	문정훈 목사	602호
교사양성반	주일, 오후 3시20분	교역자 전체	609호
주중교사양성반	금, 오후 7시	교역자 전체	503호
교구일꾼양성반	주일, 오후 3시20분	교역자 전체	607호
서울주부대학	화, 오전 10시	박종민 목사	601호
살롱경로대학	목, 오전 10시	서명철 목사	101호
선교대학	월, 오후 7시	장석남 목사	602호
마리아학교	목, 오전 10시 30분	김은숙 전도사	706호
영여성경공부반	토, 오전 11시	조슈아 조 목사	603호
서울음악교실	주일, 오후 1시30분	박정선 장로	601호
결혼예비학교	주일, 오후 12시40분	한상은 목사	905호
수화교실 기초반	목, 오후 7시	임규현 목사	606호

# 2010년도 2월 학습·세례식

## 2월 24일 수요일 · 부예배시

금년 첫 학습·세례식이 2010.2.24(수)에 거행된다. 신급 별 최소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학습: 1996년 이전 출생자(14세)
- 세례(입교, 개종 포함): 1995년 이전 출생자(15세)인 자로 특별히 금년도에는 교인 중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아니한 성도(입교, 개종 포함)를 대상으로 전 교인의 세례교인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각 교회학교 및 교구·다락방에서는 미리 대상자 파악과 함께 대상 교인을 학습·세례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신앙성장에 도움을 주고 서울교회 3대 목표 가운데 하나인 '천국시민양성'의 가시적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

2009.12.31 현재 미 세례교인은 2,55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 제6기 설교사역도고 교육

## 2월 7일(주)~3월 14일(주), 6주간 / 매 주일 오후 3시30분 - 609호

제6기 설교사역도고 교육이 열린다. 정수길 목사가 강사로 도고사역의 의미, 도고의 특권과 의무, 도고의 승리의 모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고, 설교사역 도고의 중요성

과 도고의 실제 등을 배운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란다.

#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전도사 파송기로

우리교회는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 병원 원목실(실장 유기성 목사)의 요청에 따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이선희 전도사를 파송하기로 하였다.

이선희 전도사(1958.12.31)는 연세대 종교음악과(성악)를 졸업하고 미국 얼라이언스 신대원 졸업(M. Div.), 프린스턴 신대원 졸업(Th. M.), 호주 찰스 스튜어트 대학원(D. Min 이수), Pastoral Counselling Institute, Rozelle Center for Clinical Pastoral Education, Caterbury Hospital, 세브란스 임상 목회 교육(16기)를 이수하였다.

# 방글라데시에 의료 선교사 파송

우리교회는 방글라데시에 박진영, 김미성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하였다.

박진영 선교사(1971.01.14)는 조선대의학과(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한 외과전문의이며, 김미성 선교사(1971.09.11)는 조선대 간호학과(학사)를 졸업하였으며 슬하에 박선민, 사랑, 선린 3자녀가 있다.

이들은 총회훈련과 서울교회 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후 현지로 파송될 예정이다.

# 대학부 겨울수련회

## 2월4일(목)~6일(토) 아가페타운

2010년도 대학부 겨울수련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는 주제로 아가페 타운에서 2월 4(목)~6(토) 열린다.

이번 대학부 겨울수련회는 청년들간의 다양한 나눔과 공동체 훈련을 통한 친밀감 높이기, 저녁집회와 위임목사님의 특강을 통한 신행일치의 온전한 크리스천 청년으로의 결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학부 청년들의 온전한 참여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홍보물 제작 봉사자 모집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할 역량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컴퓨터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는 분으로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에 문의하기 바란다.



민약한자구제

# 통곡의 땅 아이티



뒤흔들고  
무너지고  
끊어지고  
지워진  
통곡의 땅, 아이티

갈기갈기 찢어진  
검은 땅 아이티의 피는  
카리브해 한 자락 강물이 되어  
우리 심장 속으로 파고드는  
어찌 할고!  
당신의 음성

오늘도  
혼자 배고파 보채는  
젖먹이의 눈동자 속에  
카리브의 해는 뜨고

순간의 진동으로  
잃어버린 생명들  
아이티의 울음소리는  
천지를 울리는 영혼의 진동

아이티를 안고  
그들의 눈물이 그칠 때 까지  
그들의 눈물 속에 계시는 당신  
하늘에서의 일이  
지워진 땅 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죽음 너머  
영혼을 사모하는  
새 생명의 가슴마다  
푸르른 기적으로  
마침내  
당신께 가는 길을  
십자가로 받아내게 하소서.

신동기 권사(12교구, 시인)

Photo : REUTERS

민약한자구제 - 아가페타운

## 하나님 사랑이 실현되는 현장

순례자는 <아가페 타운> 및 <호산나 대학>의 초대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성준경 장로를 만나 아가페 타운의 운영 전반에 대한 비전과 향후 계획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

### 21세기형 복지모델타운

아가페 타운은 우리나라 최초의 지적장애인, 자폐 성장장애인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인 <호산나 대학>을 비롯해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수영장 등 다목적 시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1만여 평에 달하는 부지에는 본관동과 기숙사, 체육관, 각종 실습실, 공장을 구비한 캠퍼스를 건립하였으며 더불어 노인복지시설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인복지 시설은 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세울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호산나대학에 노인케어학과를 개설한 것도 이러한 계획의 일환이다.

###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전국적으로 16만 명에 이르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적성과 특성, 잠재능력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이 전무한 실정에서 호산나 대학은 '발달장애인들의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양학부와 전공학과(노인케어학과, 사무자동학과, 서비스학과, 뷰티케어학과 등) 및 인턴



십 과정을 개설하고 철저히 현장 중심의 실습과 취업을 위한 기능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확실적인 직업교육에 머물지 않도록 재학 중에 제빵 기술교육 및 생활도구를 생산하는 기능 공장, 컴퓨터 사용 방법을 공부하는 전산교육실 뿐만 아니라 풍물놀이와 꽃꽂이 등 취미와 여가활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서울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처소로

아가페 타운은 서울교회 성도라면 365일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중등부, 고등부, 디아스포라부, 영어예배부 등이 아가페타운에서 겨울수련회를 마쳤다. 2월 중에도 유아부로부터 대학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학과와 사랑부, 예배다부, 신혼가정부 등의 겨울수련회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 아가페 타운에는 260명 규모의 숙박시설(기숙사와 게스트하우스)이 준비되어 있으며, 2층 침대와 단독 침대 등 최신식 설비와 위생적이고 쾌적한 공동욕실을 완비하고 있다. 또한 한꺼번에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자유의 집)과 150명 규모의 중강당과 60명 규모의 소강당(사랑의 집) 및 각각 15명에서 30명이 기도회 및 가족모임을 가질 수 있는 다목적실(평화의 집)이 구비되어 있다.

성준경 장로는 아가페 타운의 설립 취지와 목표가 훼손되지 않고 끝까지 처음 목적했던 바를 달성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천하는 아가페 타운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을 요청하며, 지역주민들에게도 따뜻한 사랑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아가페 타운으로 거듭나 지역사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가페 타운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깨우치며 그 사랑이 실현되는 현장으로 장애인 복지와 교육 및 노인복지에 새로운 지평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한다.

나소정 집사(편집부)

대학입시에 실패한 제자에게

# 하나님의 크신 섭리



김광룡 집사(11교구, 둔촌고교 교장)

사랑하는 제자, OO야

올해는 1월의 한파가 더 매섭구나. 해마다 1월이 되면 수험생들과 부모들은 초조와 긴장 속에서 대학 합격을 학수고대하기에 더 추운가 보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우리의 인생도 항상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낙오라는 쓰라린 아픔도 겪게 된다. 실패와 노력이 없이 역사적으로 훌륭한 이름을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다면 가족 모두가 기뻐하며 웃음꽃이 피겠지만 대학에 실패한 학생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창피하기도 하고 누가 물을까봐 조바심이 든다.

그러나 조금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실패를 일찍 경험한 것뿐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사용할 큰 계획으로 섭리하시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실패를 빨리 딛고 일어서는 의지가 필요하다. 결단이 빨라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차선책

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재수를 택 하든지 빠를수록 좋다. 새로운 선택이 명확하다면 부모님과 대화하고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성공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다짐으로 재수한 결과 더 좋은 결실을 얻은 학생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좋은 하나님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시려고 하신다.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일찍 맞본 것은 삶의 값진 보약이다. 기회는 또 오고 다시 잡을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로운 의지와 결단으로 더 크게 일어나야 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기다리고 있다.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소프라노 김혜란 선생의 찬양으로 드린다.

김혜란 선생(경희대 음대 졸업)은 독일 Wuppertal국립음대 성악과 최고연주자 과정과 국제성악코스를 수료하였다. 귀국후 오페라 출연 및, 오라토리오등의 독창자로 활동하는 한편 경희대, 국제신학대학원, 호서대, 계원예고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오늘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F.Stanphillhr)의 2곡을 김양언 선생(할렐루야찬양대 피아니스트)의 반주로 연주한다.

## 지하 주차장 대청소

### 2월 6일(토) 제1, 2 스테반회 주관으로

겨울동안 쌓인 지하 주차장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대청소를 2월6일(토)에 갖는다. 1, 2 스테반회(회장: 최광성집사, 송인권집사) 주관으로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모든 주차 차량은 1층 교회 정문 앞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천국시민 양성 - 신혼가정부 수련회 초대

# 세상과 구별된 행복과 사랑



홍일성집사(신혼가정부 부장)

하나님의 축복속에 가정을 이루어 인생의 가장 달콤하고 아름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서울교회 신혼 가정부 회원 여러분!

2월 6일(토) 아가페 타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혼가정부"라는 주제로 겨울수련회가 열립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남녀가 함께 모여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며 행복을 가꾸어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진정한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우자와 함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찬양과 기도로 더욱 깊은 신앙을 체합하며, 부부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께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우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 해주신 축복의 잔치에 서울교회 모든 신혼 가정부 회원들은 참여하시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월 4일(목) 한국군선교연합회 이사회에 참여한다.
- 이황명(손혜신) 이스라엘교사는 지난 해 11월 25일 계약기간 만료로 현지 선교사역을 마감했다.
- 승진 : 김석범 집사(12교구) 경기대학교 공대학장 임명
- 선임 : 이규민 집사(3교구) (사) 한국시정경제포럼 제5대 회장
- 주간식당 봉사: 바울선교회(1.31) 엘리야선교회(2.7)
- 금주의 식사 : 최민숙집사 · 노인숙 권사 가정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 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 서울 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2.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3. 아이티 지진 참사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4. 북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 ■ 교회오시는 길

